

점진적인 성취의 해석학은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을 대면시키고자 하며 예수님을 교회와 세계와 더불어서 취급하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석의적 모델을 고려하고자 한다. 현재의 종말론적인 개요는 성취의 시간(지금, 천년의 통치, 혹은 영원한 상태) 혹은 성취의 본질(영적인 그리고 혹은 물질적인)의 윤곽을 그려서 거대한 파노라마의 여러면들을 강조한다. 예언적인 해석에서 유대인의 문제는 성취의 시간과 본질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⁹⁴⁾ 예언에 대한 칼빈의 해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약예언의 새로워진 흥미, 그리고 '예언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고대언약 백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⁹⁵⁾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5422 Clinton Boulevard Jackson,
Mississippi 39209

christlichen Kirche, vor der Treue Gottes zu erschrecken, die dem menschlichen Programm einer Endlösung seine barmherzige Geschichte entgegengestellt hat"(79-80페이지).

- 94) 비처(W. J. Beecher) 말 "만약 기독교 해석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성취의 개념에서 제외시킨다면, 이스라엘을 단지 준비적이며 영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길다면 그는 신구약의 평이한 증거와 모순되게 된다.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모든 세대에서 구속받은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이다" (The Prophets and the Promise [Grand Rapids : Baker, 1963] 383).
- 95) 교회의 책임에 대한 칼 바르트의 관점은 사도의 정신과 상통한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이 태도를 마지막 시대까지 연기해서는 안되며 지금, 오늘, 그들에게 수여된 은혜를 통해 유대인들이 은혜를 획득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Shorter Commentary on Romans [Richmond : John Knox Press, 1959] 147). J.M. Hasselaar, "Opmerkingen over de eenheid van Israel en de Kerk onder missionaire en eschatologische belichting," NedTTs 9(1954-55) 193-229; W. Zimmerli, Jüdisches Volk, 80-81; J.C. Berkouwer, The Church (Grand Rapids : Eerdmans, 1976) 403-7; Heinrich Ott, "Artikel 43: Das Problem der Mission," Die Antwort des Glaubens. Systematische Theologie in 50 Artikeln (Berlin : Kreuz Verlag, 1972) 415-25; and Wayne Grytter "Two Faits—one Covenant." The Reformed Journal 29/1(February 1979) 20-24와 비교해 보라.

"누가복음 8:4-15"(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구 소고

안재경(원3)

〈주제 논문〉

I. 서론	목 차
II. 본론	3-2. 네 가지 밭의 의미 3-2-1. 길가 3-2-2. 바위 위 3-2-3. 가시밭 3-2-4. 좋은 땅
1. 씨 뿌리는 자 비유의 구상 1-1. 타 복음서와의 비교 1-2. 이 비유의 내용과 배경 2.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3. 예수님의 이 비유 해석 3-1. 씨의 의미	4. 이 비유의 강조점 III. 결론

〈Intuition〉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결실한다.

I. 서 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려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구체화하여 설명하셨다. 비유는 청중들에게 과거지사가 현재, 그리고 오늘날 일어난 그 방법으로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는 메시야적 방법으로, 그리함으로 천국의 구원이 현실적 실재가 되었음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¹⁾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하에 듣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유가 청중들의 이해를 돋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지만 실재로는 감출의 특색이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비유가

1) 해르만 리엘보스, 하나님 나라, 엠마오 : 서울, 1987, p. 182.

의도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²⁾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한 해석으로 일관되어 왔다. 정말 그것이 옳은가? 이런 점에서 본 주제논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어진 원래의 문맥을 중요시하여 살피고자 한다. 동시에 이 비유의 배경, 예수님 자신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및 예수님 자신의 이 비유 해석을 살펴봄으로 이 비유의 원래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 원래적 의미는 설교하고자 할 때 나와지는 적용과는 원리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II. 본 론

1. 씨 뿌리는 자 비유의 구상

1-1. 타 복음서와의 비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농사를 배경으로 하는 비유 중의 하나인 바 복음서 저자들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그들의 독자들에게 독창성있게 전달하고 있다.³⁾

이 비유(누가복음8:4-15)는 누가복음8:1-21의 단락속에 위치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순회사역으로 시작되는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보는 것과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⁴⁾ 예수님의 여행은 평민계층, 즉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7:29, 37; 8:1-3)에게는 이미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7:30, 39)하였다. 즉 누가는 이 비유를 청중의 수용과 거절에 중점을 둔 상황속에 배치하였다.⁵⁾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13장은 구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⁶⁾ 13장(세째 강화)이전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거절

2) 정학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해석에 대한 연구, 카톨릭 대학원, 1974, p. 1.

3) 사이먼 키스터 메이커, 예수님의 비유, 기독교 문서 선교회 : 서울, 1986, p. 39.

4) G. 피, 성경해석 방법론, 기독교 문서 선교회 : 서울, 1987, p. 300.

5) 사이먼 키스터 메이커, op. cit., p. 40.

6) 황창기, 산상 보훈의 위치와 구약적 배경, 고신대학 논문집 제14집, pp. 346ff.

당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특히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사탄왕국의 강력한 저항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진상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도록 가르쳤다.⁷⁾

마가복음에서 이 비유는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의 사역(1:14-5:43)문맥 내에 위치한다. 아마 마가는 갈릴리 해변을 중심하여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 같다. 마가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 비유의 중요성을 시사시킨다.

마태, 마가복음과의 병행기사간에는 미세한 차이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서 기사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을 그들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곳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과 배경은 무엇인가?

1-2. 이 비유의 내용과 배경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많은 씨들이 유실될 정도로 서투르게 씨를 뿌린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파종의 일반적인 경우가 여기에 묘사되었다고 생각하면 말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팔레스틴에서는 보통 있는 일이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곡초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갈지 않은 밭 위에 파종하고 있는 것이다.⁹⁾ 그리고 그는 씨앗을 덮기 위하여 쟁기를 갈아젖힌다. 그리고는 겨울비가 와서 싹이 나도록 기다린다.

예수님의 비유속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하는대로 단순히 씨를 뿌리고 있었다. 길이라는 것은 멀지 않아 갈게 되어있는 밭을 여러 사람들이 가로 질러 걸어다님으로써 생긴 길이다. 잡초는 같아 놓은 밭 밑에서 곧 자란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느 땅 밑에 반석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석회석층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¹⁰⁾

농부는 하루종일 씨를 뿌리기 때문에 좋지 못한 땅에 씨가 떨어져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농부는 파종시에 잊어버리는 씨앗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다. 그는 수확의 희망을 갖고 추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청중들은 평균적인 십배의 수확 대신에 그가 백 배를 말씀하시므로 놀랐을 것이다.

7) H. N. 리엘보스, 마태복음 강해, 성서 유니온 : 서울, 1984, pp. 47~49

8) 마가복음 4:13

9) J. 예레미아스, 예수의 비유, 문도 출판사 : 왜관, 1984, pp. 9-10.

10) 로버트 스타인, 예수님의 비유 연구, 친콜리아사 : 서울, 1988, p. 38.

예시야 시대에 있어 땅이 풍요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교훈이다.¹¹⁾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풍성한 수확에 있다. 인간의 눈에는 많은 노력이 헛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기대는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¹²⁾ 그러나 심은 씨가 작다거나 시작이 보잘것 없다고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이 비유에서 추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비유의 초점이 씨의 작은 시작과 화려한 끝을 대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씨의 성공과 실패를 대조시키려고 생략된 것이라 볼 수 있다.¹³⁾ 우리는 농작물의 수확을 증가시키는 비에 관한 언급을 기대하지만, 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농사짓는 과정에 있어서의 고역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심과 인간이 농사에 진력하는 바는 이 비유의 조성과 해석에 나타나지 않는다.¹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 전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먼저 주지시키셨다.¹⁵⁾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비유 해석에 열쇠가 되는 말이다.

2.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관한 단락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누가는 그 나라의 '비밀'을 '비밀들'로, '외인'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키고 이사야서의 인용부를 상당히 생략하고 있다.

olumn 문서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사명을 받은 의의 교사의 직임에 관하여 언급하다. 의의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씨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친다.¹⁶⁾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신적 계시를 가져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까이 따른 자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나 본 기사 앞의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 그들은 단지 정

11) 아모스9:13, 예레미야31:27, 에스겔36:29.30.

12) J.예레미아스, op. cit., p. 145.

13) 정학근, op. cit., p. 12.

14) 사이먼 키스터 메이커, op. cit., p. 45.

15) 누가복음 8:9-10.

16) F.F.Bruce, Second Thoughts on the Dead Sea Scrolls, Paternoster Press, 1956, p. 101.

치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했다. 바리새인들도 비난하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감히 죄인의 죄를 사한다니 신성모독자이다'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님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¹⁷⁾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이 상황을 잘 보여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양면의 효과가 있다. 그것은 계시하는 효과와 감추는 효과, 은혜의 측면과 심판의 측면이다.¹⁸⁾ 그러면 계시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현존한다는 사실이다.¹⁹⁾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과 파종 이야기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바로 비유를 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씨 뿌리는 자의 행동을 통해서 파종 이야기가 시작된다. 씨 뿌리는 자의 출현이 없다면 파종 이야기는 무익하게 되어 버린다.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단 땅에 뿌려진 씨는 토질에 따라 열매를 맺거나 말라 죽게 된다. 결국 땅은 파종과 역진할 수 없는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관계는 씨 뿌리는 자의 행동을 통해서 이끌려지는 것이다.²⁰⁾ 감추는 효과는 예수님과 더불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강퍅해진 자들은 비유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외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천국이 현존한다는 것은 은혜의 측면이며, 그 천국의 현존이 강퍅해진 마음에 의해 가리워졌다는 것은 심판의 측면이다.

3. 예수님의 이 비유 해석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몇몇 비유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해석은 예수님 자신의 해석에 종속되어야 한다.

3-1. 씨의 의미

누가복음에서는 강조점이 씨 뿌리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에게로 변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씨가 열매를 맺든지 그렇지 않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며, 씨를 뿌리는 자의 노력에 의해 결실이 되어졌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씨는 종말론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즉 예수님의 소개

17) 누가복음8:10.

18) 마태복음12:12-15.

19) 정학근, op. cit., p. 13.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스스로의 생명력에 의해 자란다. 그러나 씨는 밭에 심기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결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3-2. 네가지 밭의 의미

이 비유에서 뿌린 씨 가운데 4분의 3이 손실되었고 4분의 1만이 열매를 맺었다. 비유의 구성이 결실하지 못하는 세개의 불모지와 한개의 옥토를 대조하면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개의 옥토가 여러 종류의 밭중 하나가 아니라 그 밭 자체이며, 길가, 돌밭, 가시덤불의 밭도 표면상으로는 한 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²¹⁾ 그러나 좋은 땅에는 어쨌든 결실이 있다.

확실히 각 토질에서의 씨의 성장은 실패나 성공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며,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전 과정이 묘사되고 있다. 결국 네가지 토양에 대한 묘사는 독립해서 한 단위를 이루고 있지 않고 전체가 결실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비유가 의도한 목표는 각 토양의 질에 따라 뿌려진 씨의 결실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생산된다는 당위의 결과가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것이다. 결실에 대한 가르침은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에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권고의 가르침도 첨가되어 있다.²²⁾ 이 비유는 교회안에 있는 진실한 신자들과 동시에 의인들까지도 대상으로 삼는다.

3-2-1. 길 가

이 사람은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이다(누가복음 8:12).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마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말씀을 들은 자의 책임이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씨의 운명은 마음이 영적인 임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언약적 측면에서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굳어진 마음을 소유한 백성이다. 즉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3-2-2. 바위 위

기분에 좌우되는 자이다 (누가복음8:13).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지는 자이다. 여기서 뿌리가 없다는 것은 일시적 현상임을 강조한

20) 박형룡, 씨 뿌리는 비유의 연구, 신학지남 제44권2집, p. 79.

21) 전경연, 예수의 비유, 기독교서회 : 서울, 1962, p.47.

22) 정학근, op. cit., p. 13.

다. 습기가 없는 것이 말라지는 이유이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다.²³⁾ 바위 위의 밭과 같은 사람은 확신과 용기와 견고함과 인내가 부족하다. 이 사람은 온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3-2-3. 가시밭기

마음 깊숙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이다(누가복음8:14). 봄이 돌아왔을 때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튼튼하게 자란다. 그러나 태양의 열기는 가시밭기도 살아나게 해 불과 몇 주 후에는 가시밭기가 꼭식의 키보다 더 높이 자라 꼭식을 질식시킨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은 인류의 영적 노예 상태를 잘 보여준다. 두 종류의 식물이 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식물이 생존에 우선권을 갖는다.²⁴⁾ 이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3-2-4.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이다(누가복음8:15). 이 사람은 단순히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새 언약의 약속이다.²⁵⁾ 새 언약은 우리의 전 인격을 불러들여 말씀을 잘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케 한다.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4. 이 비유의 강조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비유의 일차적인 주제는 씨와 결실이다. 성장이나 시작과 끝의 화려한 대조는 이 비유의 주제가 아니다.

씨 뿌리는 자의 행위는 종말론적 시기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이다. 뿌려진 씨는 열매맺지 못하는 땅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좋은 땅을 만나 결실하게 된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만나려고 오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로 인하여 듣는 자들이 구분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한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충실히 순종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은 근본적으로 피상적인 신앙의 소유자든지, 혹은 세속적인 부요와 재물에 마

23) 시편 1:3.

24) 샤이먼 키스터 메이커, op. cit., p. 48.

25) 예레미야 31:31-34.

음을 빼앗긴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실할 수 없다.

한편 비유에서 추수의 모습이 생략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천국의 미래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씨 뿌리는 사람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여기에 없고 최종적 완성이 미래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내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 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누가는 청중의 수용과 거절에 중점을 둔 상황속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배치함으로 여기에 답하고 있다. 핵심은 뿌려진 씨와 좋은 땅의 만남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론적 만남이 이 비유의 강조점이다. 씨가 일단 뿌려지면 스스로 자란다. 그러나 좋은 땅을 만나야만 씨가 자라 결실한다.

참고서적

- 사이먼 키스터 메이커, 예수님이의 비유, 기독교 문서 선교회: 서울, 1986.
- J. 예레미아스, 예수의 비유, 분도 출판사: 왜관, 1984.
- 로버트 스타인, 예수의 비유연구, 컨콜디아사: 서울, 1988.
- 전경연, 예수의 비유, 기독교서회: 서울, 1962.
- D. 스튜어트/G. 피, 성경해석 방법론, 기독교 문서 선교회: 서울, 1989.
- 헤르만 리델보스, 하나님 나라, 엠마오: 서울, 1989.
- 헤르만 리델보스, 마태복음 강해, 성서 유니온: 서울, 1984.
- 정학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해석에 대한 연구, 카톨릭 대학원, 1974.
- 황창기, 산상 보훈의 위치와 구약적 배경, 고신대 논문집 제14집, 1986.
- 박형룡, 씨 뿌리는 비유의 연구, 신학지남 제44권 2집.
- H.C.Hanko,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Reformed, 1975.
- A.B.Bruce, The Parabolic Teaching of Christ, Armstrongs, 1898.
- F.F.Bruce, Second Thought on the Dead Sea Scrolls, Paternoster Press, 1956
- 기타 여러 주석류

누가복음 8:4-15(씨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제 논문에 기초한 설교문

목

I.
무성의하게 씨를 뿌리는 농부

II.

1.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차

2.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
저한 순종만이 천국의 복
락을 누리게 합니다.

III.

말씀에 대한 자기부인의 노력

〈Proposition〉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I.

늦가을 황흔이 내리는 오후 시간에 들녘을 거니노라면 누구든지 황금물결을 보면서 마음의 풍요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풍요는 농부의 뼈아픈 피땀어린 수고로 인해 주어지는 것임을 잊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농부는 마지막 결실을 위해 씨를 뿌리는 시기부터 자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풍요한 결실은 씨를 잘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씨를 뿌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농사일에 큰 관심이 없는지 많은 씨들을 아무곳이나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진 길가에 씨를 뿌리기도 했으며, 딱딱한 바위 위에도 뿌렸으며, 심지어는 가시밭길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했는데 결실은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뿐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농부는 무성의하게 되는 대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농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숙하고 서투르게 보이는 이 농부의 씨 뿌리는 행위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실려고 하십니까?

‘말씀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오직 열매

음을 빼앗긴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실할 수 없다.

한편 비유에서 추수의 모습이 생략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천국의 미래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씨 뿌리는 사람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여기에도 없고 최종적 완성이 미래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내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 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누가는 청중에게 수용과 거절에 중점을 둔 상황속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배치함으로 여기에 핵심은 뿌려진 씨와 좋은 땅의 만남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에 대한 만남이 이 비유의 강조점이다. 씨가 일단 뿌려지면 스스로 자란다. 그러나 좋은 땅을 만나야만 씨가 자라 결실한다.

참고서적

- 사이먼 키스터 메이커, 예수님이의 비유, 기독교 문서 선교회: 서울, 1986.
- J. 예레미아스, 예수의 비유, 분도 출판사: 왜관, 1984.
- 로버트 스타인, 예수의 비유연구, 커콜디아사: 서울, 1988.
- 전경연, 예수의 비유, 기독교서회: 서울, 1962.
- D. 스튜어트/G. 피, 성경해석 방법론, 기독교 문서 선교회: 서울, 1989.
- 헤르만 리델보스, 하나님 나라, 엠마오: 서울, 1989.
- 헤르만 리델보스, 마태복음 강해, 성서 유니온: 서울, 1984.
- 정학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해석에 대한 연구, 카톨릭 대학원, 1974.
- 황창기, 산상 보훈의 위치와 구약적 배경, 고신대 논문집 제14집, 1986.
- 박형룡, 씨 뿌리는 비유의 연구, 신학지남 제44권 2집.
- H.C.Hanko,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Reformed, 1975.
- A.B.Bruce, The Parabolic Teaching of Christ, Armstrongs, 1898.
- F.F.Bruce, Second Thought on the Dead Sea Scrolls, Paternoster Press, 1956
- 기타 여러 주석류

누가복음 8:4-15(씨부리는 자의 비유)의 주제 논문에 기초한 설교문

목 차

- | | | |
|-----|------------------------------|---|
| I. | 무성의하게 씨를 뿌리는 농부 | 2.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
| II. | 1.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 III. 말씀에 대한 자기부인의 노력 |

〈Proposition〉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I.

늦가을 황혼이 내리는 오후 시간에 들녘을 거니노라면 누구든지 황금물결을 보면서 마음의 풍요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풍요는 농부의 빼아픈 피땀어린 수고로 인해 주어지는 것임을 잊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농부는 마지막 결실을 위해 씨를 뿌리는 시기부터 자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풍요한 결실은 씨를 잘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씨를 뿌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농사일에 큰 관심이 없는지 많은 씨들을 아무곳에나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아서 단단해진 길가에 씨를 뿌리기도 했으며, 딱딱한 바위 위에도 뿐였으며, 심지어는 가시밭기에도 씨를 뿐였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뿐이었지만 뿐이었는데 결실은 오직 좋은 땅에 뿐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농부는 무성의하게 되는 대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농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숙하고 서투르게 보이는 이 농부의 씨 뿌리는 행위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실려고 하십니까?

‘밀씀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오직 열매

맺는 신앙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시간 우리는 1.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이땅에 도래하였다라는 것과 2.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II.

1.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이땅에 도래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파종의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팔레스틴에서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꼭초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갈지 않은 밭 위에 파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씨앗을 던기 위해 쟁기를 갈아 젖힙니다. 그 후에 그는 겨울비가 와서 싹이 나도록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팔레스틴의 농부들이 하는 대로 단순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멀지 않아 갈게 되어 있는 밭을 여러 사람들이 가로 질러서 걸어다님으로써 생긴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씨 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려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라고 합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어느 땅 밑에 반석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석 층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농부는 바위위에 씨를 뿌렸습니다. 6절에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라고 합니다. 가지멸기는 갈지 않은 밭에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더러는 가지멸기 속에 떨어지매”라고 합니다. 농부는 하루종일 씨를 뿌리기 때문에 좋지 못한 땅에 씨가 떨어져도 안 타까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확의 희망을 갖고 추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표면상으로 한 밭을 이루고 있는 밭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인 1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님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 자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나 본 기사 앞의 상황을 그리 밝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8:1-21의 단락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순회사역으로 시작되는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보는 것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은 평민계층, 즉 세리와 창기에게는 이미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 하였습니다. 즉 이 비유는 청중의 수용과 거절에 중점을 둔 상황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와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수용과 거절이 뚜렷이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수용과 거절에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양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하는 효과와 감추는 효과입니다. 은혜의 측면과 심판의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시하시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현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이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심판의 측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이 현존의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과 파종 이야기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바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행동을 통해서 파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출현이 없다면 파종 이야기는 소용없게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씨 뿌리는 자로써 천국을 이땅에 도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도 씨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단 땅에 뿌려진 씨는 토질에 따라 열매를 맺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결국 땅은 파종과 역으로 진행할 수 없는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씨 뿌리는 자의 행동을 통해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어디에 뿌려져야 합니까? 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골라서 뿌리면 전부 결실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 즉 자기가 보기기에 수용적인 사람에게만 전도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하나의 좋은 땅은 밭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밭 자체입니다. 길가,

돌발, 가시덤불의 밭도 표면상으로는 한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니 불태자일거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을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웃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신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각 토질에서의 씨의 성장은 실패나 성공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며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전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가지 토양에 대한 묘사는 각각 독립해서 한 단위를 이루고 있지 않고 전체가 결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불신자의 마음이고, 좋은 땅은 신자의 마음이라는 사상을 틀린 생각입니다. 즉 이 비유는 교회안에 있는 진실한 신자들과 동시에 불신자들까지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신자, 불신자 똑같이 이 비유의 대상으로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회원이니까 좋은 땅이겠지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저 사람은 예배에 잘 빠지니까 좋지 못한 땅이겠지라고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천국의 비밀이 밝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땅에 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국은 이 땅에 펴져나가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비밀이었던 하늘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부터 친히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씨와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에 있습니다. 밭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 자신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죽었던 것을 소생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종말론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는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었다고 자랑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었습니

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합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은 평균작인 십 배의 수확 대신에 예수님께서 백 배를 말씀하시므로 놀랐을 것입니다. 메시야 시대에 있어 땅이 풍요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구약의 교훈 중 하나입니다. 아모스 9장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배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레미야31장 27, 28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훼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군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36장 29,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러므로 이 비유는 씨와 땅의 만남을 통한 풍성한 수확을 보여 줍니다. 인간의 눈에는 많은 노력이 헛되어 보이고, 실패로 보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보일지도라도 예수님의 기대는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이땅에 가져오셨으니 결실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으나 그것이 모두 결실되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종종 눈에 보이는 결실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실이 눈에 보이면 기뻐하고,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실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밭이 다 결실했습니까? 아닙니다. 결실하는 밭은 4가지 밭중에 1가지 밭입니다. 4분의 1이 결실한 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결실을 없는 것 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복음 전하는 것 보다는 기도나 해야되겠다” 이런 분들은 평생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현실입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이어

서도 안됩니다. 결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결실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사람은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하고만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달혀 있는 것은 마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말씀을 들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씨의 운명은 마음이 영적인 임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설교시간에 가만히 살펴보면 길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상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립니다. 오른쪽 귀와 왼쪽 귀 사이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은 즉시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관찰하기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예쁜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은 머리를 감지도 않고 교회에 왔는가 보지. 오늘은 목사님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예배전에 무슨일이 있었을까?”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백화점으로 생각하고 눈요기(eye shopping)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눈을 즐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축면에서 본다면 길가에 있는 사람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굳어진 마음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즉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수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가 없다는 것은 일시적 현상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책 제목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성실.” 처음 믿을때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성실하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남비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끊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쉽게 식습니다. 쉽게 끊었다가 쉽게 식는 남비같은 사람이 바위 위의 사람입니다. 똑배기 같은 신앙이 좋습니다. 천천히 끊었다가 천천히 식습니다. 기분에 쉽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즘 ‘부흥회 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흥회만 좋다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혼자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흥회가 끝나면 며칠이 못되어 식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부흥회로 찾아 갑니다. 거기서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날을 ‘인스탄트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음식이 즉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도 즉석입니다. 한번 만나서 눈에 들면 즉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빠릅니다. 모든 것이 즉석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무조건 O.K.입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거절입니다. 바위 위의 사람은 습기가 없으므로 쉽게 말라거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합니다. 확신파용기, 겸손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올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 믿음이 증명됩니다. 이때 배반하면 천국백성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분에 좌우되는 이 사람은 조울증 환자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때는 잔도 빼 줄것같이 하다가 기분이 나쁠때에는 어떤 극악한 행동도 불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온 성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 깊숙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돌아왔을때 가시 밭에 뿌려진 씨는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태양의 열기는 가시떨기도 살아나게 해 불과 몇주 후에는 가시떨기가 곡식의 키보다 더 높이 자라 곡식을 질식시킵니다. 저는 어떤 불신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짚었을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이 있었든지 새벽 예배시간이 되면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맨발로 뛰어가 새벽종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적이던 분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가정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 되어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이제는 아예 교회와 상관이 없는 불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은 인류의 영적 노예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죽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재리도 무서운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거나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한 바로 다음 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고 합니다. 일락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죄입니까?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에 끝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즐거움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쓸모없는 인간임을 말합니다. 씨와 가시떨기는 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식물이 생존에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이 증거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수준높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수준높은 도덕성만이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3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암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전 인격을 불들어 말씀을 잘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케 합니다. 우리들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옛 언약의 백성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여기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의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앞에서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III.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론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뿌려졌고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말씀에 대한 겸손을 방해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원수입니다.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꿇을 때만이 비로소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천국의 무한한 복락을 지금 이 땅위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겸손”을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는 항상 교만해지기 쉬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지키어 끝까지 인내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